

한은, 16년만에 최대 순이익 기록

당기순이익, 3조9640억... 전년비 5861억 증가 '초저금리'로 통화관리비용 크게 줄어들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16년 만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순이익의 70%는 정부 공간에 세입으로 납입된다.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세후)은 3조9640억원으로 전년(3조3779억원)보다 5861억원 증가했다.

4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지난 2001년에 이어 16년 만에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한은의 순이익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3조원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2조669억원으로 내려갔고, 2014년 1조원대로 쪼그라들기도

했다.

이후 2015년 2조7156억원, 2016년 3조3779억원으로 다시 3조원대로 회복했다.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금리가 연 1.25%로 내려간 이후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전까지 사상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통화관리비용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한은의 수익은 대체로 외화자산 운용 등 유가증권 이차에서 거둬들이고, 비용은 주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한다.

한은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데, 저금리 덕분에 이 비용이 크게 줄었다. 한은의 순익계산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 순익(순익계산서)은 2조5800억원으로 1년 전(3조6000억원)보다 4800억원 감소했다.

통안증권이자를 비롯한 전체 지급이자와 할인료, 수수료, 화폐제조비 등으로 발생하게 된 총비용도 7조799억원으로 전년(9조6019억원)보다 2조5220억원 감소했다.

다만 총순이익은 12조3880억원으로 전년(14조4559억원)보다 1조6675억원 줄었다.

외화증권 이자는 6조1900억원으로 전년(6조1100억원)보다 늘었지만 원

화증권 이자(4500억원)와 유가증권 매매이익(3조8600억원) 등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법인세 등으로는 1조3441억원을 냈다. 1년 전 납부한 법인세는 1조6577억원이었다.

한은의 순이익 중 30%(1조1892억원)은 한은법에 따라 법정적립금으로 쌓인다. 한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을 위해 415억원도 임의적립금으로 남겨뒀다.

순이익의 약 70%에 달하는 나머지 2조7333억원은 정부 세입으로 처리했다.

/최수호 기자

“금감원 혁신·변화 이끌 책임자”

신임 금감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 내정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근 사임한 최홍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의를 거쳐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지난 12일 최 위원장이 지인 아들 채용청탁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후 18일 만이다.

신임 금감원장은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결,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



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제19대 국회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 정책, 제도, 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책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전했다.

/최수호 기자

이달부터 고혈압·당뇨병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삼성화재 등 8개 보험회사서 일제 판매

4월 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실손보험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8개 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당장 4월 2일부터 가입 가능한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 7곳이다. 농협손보는 4월 중 판매한다. 상반기 중에는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이 상품을 출시한다.

노병, 심근경색, 뇌출혈 등 10개 질병에서 '약'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이 완치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기존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은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입원과 통원 등 외래진료 비용까지 가능하나 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 한도로 연 180회를 보장한다. 가입은 75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비싸다. 50세 기준 남자 3만5812원, 여자 5만4573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은 실손의료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상품을 별도의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상품 특성이 다른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기존처럼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할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최수호 기자



대한민국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전북 쌀 우수 브랜드·로컬푸드 홍보관 등 7개 부스 운영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제4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열렸다.

이 박람회에서 전북 원예농산물 대표 브랜드 '예담채' 및 전북 쌀 우수 브랜드, 전북 로컬푸드 홍보관 등 총 7개 부스를 운영, 영남권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홍보관 운영을 통해 부산권 및 영남권 소비자들에게 사과, 배, 딸기, 토마토, 양파 등 전북 예담채 농산물 뿐 아니라 전북 우수 브랜드 양파 및 로컬푸드 특산물(곤고구마 말랭이, 사과 칩, 아로니아 가공품, 토마토 고추장, 누룽지

등)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1회 박람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보행사는 무주 사과 등의 과일과 전북 대표 쌀 등을 할인판매하며, 과일, 가래떡, 가공품 등의 시식 및 증정행사를 통해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전북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협력해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영남권까지 지속적으로 공략, 삼각농정 실현 및 판매농협 구현으로 농가소득 5천만원을 조기에 달성해, 국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농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우정청,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선진 펫 문화 조성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손잡고 2일 부터 정부의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과 그 소유자 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동물 분실 시 신속히 찾아주고 동물 유기를 억제하는 등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여 선진 펫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미 반려견 등록을 한 고객 이 등록증을 갖추어 우체국 예금상품을 가입하면 5천~1만원 상당의 반려견 용품을, 가입상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금리나 반려견과 함께 찍은 나만의 우표를 사은품으로 준다.



또한 아직 등록하지 못한 고객이 가입하면 우체국에서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벤트가 10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청장은 “전라북도도 함께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그 혜택을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주민들과 더 공감하고 상상하는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방통위, 주요 SNS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을 점검한다.

방통위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

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의 주소록·통화기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